

## 한·EU FTA 축산/사료부문 협상결과

조사팀 홍성수 차장

한·미 FTA에 이어 국내 농·축산업계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한·EU FTA가 타결 및 가서명이 이루어졌다. 이에 본지에서는 한·EU FTA의 추진경과 및 축산/사료부문의 협상결과를 게재한다.

— 편집자 註 —

### 1. 한·EU FTA 협상 추진경과

- '07. 5월 협상 개시 후 '09. 3월까지 2년간 8차례 협상 진행
  - 제1차('07.5)협상에서 협상일정, 협정문 작성방안, 양허방식 등 협상의 기본 틀에 대한 의견 교환
  - 제2차('07.7)협상부터 본격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 논의 시작
    - 농수산물을 포함한 상품 분야 1차 양허안 일괄 교환('07.7)
  - 제3차('07.9)협상에서 수정 양허안을 제시하고 품목별 협상 시도
  - 제4차('07.10)협상에서 민감 품목 중심으로 양허배경을 설명
  - 제5차('07.11)에서는 상품양허, 자동차표준, 공산품 원산지기준이 쟁점
  - 제7차('08.5)협상에서 상품양허 협상은 개최되지 않았으며, 자동차 관세와 표준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
    - 통상장관회담('09.1)에서 상품양허, 관세환급, 원산지, 자동차 비관세, 서비스 등 잔여핵심 쟁점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
  - 최종 제8차협상('09.3.23~24)에서 관세환급, 농산물양허 등 일부 잔여쟁점 외 대부분 합의 도출

- 대통령 유럽 순방('09.7.7~14)을 계기로 사실상 타결을 이루고 “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10.15, 브뤼셀에서 가서명
  - 가서명 이후 협정문 공개(19일 주간), 23개국 언어로 번역작업(3~4개월 소요)을 거쳐 정식서명(내년 상반기) 전망

## 2. 한·EU FTA 협상결과(축산/사료부문)

- 총 1,449개 농산물 품목(HSK 기준) 중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, 고추(270%), 마늘(360%), 양파(135%), 대두(487%), 보리(324~299.7%), 감자(304%), 인삼(754%~222.8%), 제주산 감귤(온주 밀감)(144%), 흑설탕(40%) 9개 품목은 현행관세 유지
  - 냉동삼겹살(25%), 쇠고기(40%) 등 458개 품목은 관세 존속 기간을 10년 이상
  - 분유(176~89%)는 현행관세를 유지, 치즈(36%) 등 일부 낙농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10년 이상에 걸쳐 폐지하면서 무관세 물량(TRQ ; Tariff Rate Quota)을 배정
- 냉장 돼지고기(22.5%), 쇠고기(40%), 보리(맥주맥(513%)·맥아(269%)), 감자전분(455%), 변성 전분(385.7%), 사과(45%), 인삼(754.3%), 발효주정(270%)에는 농산물 세이프가드(Agricultural Safeguard) 설정
- 신선 농산물은 제3국산의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‘완전생산기준’을 적용
  - 축산물은 역내에서 출생, 사육된 경우에만 원산지 특혜 관세가 인정되며, 역외국에서 수입하여 도축한 경우에는 인용되지 않음.
  - 채소, 과일, 화훼 등 경종 작물은 당사국이나 EU 역내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작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특혜 관세가 인정
- 위생 및 검역 분야는 WTO ‘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’(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)상의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했으며, 세부적으로는 수입요건 부과, 병해충 무발생·저발생 지역 개념을 인정하는 절차적인 내용을 포함

### 3. 영향분석

■ 농촌경제연구원(KREI)과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(KMI)에서는 최종 협상결과가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, 농수산업 생산 감소액이 매년 조금씩 커져서 15년차에는 2,481억 원~3,172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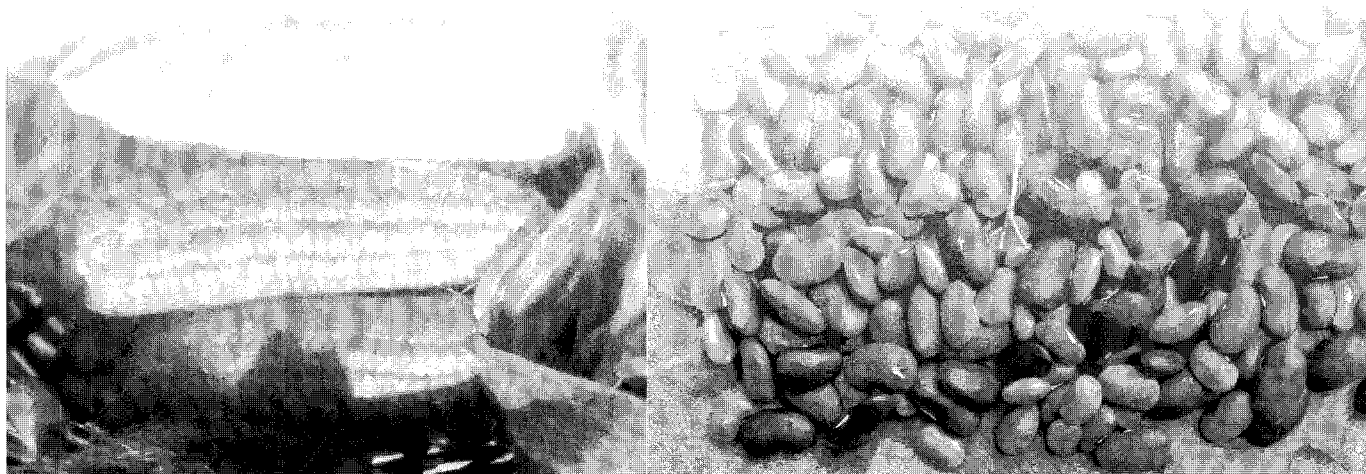
○ 발효 15년차에 관세가 완전철폐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농산물 생산감소액은(KREI)은 2,369~3,06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(5년차 생산감소액 : 999~1,127억 원 수준)

\* 농산물 생산감소액 중 돼지고기, 낙농품, 양돈, 쇠고기 등 축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94%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

■ 한·EU FTA 타결 후 축산품목별 생산감소 추정액(KREI)

(단위 : 억 원)

| 품 목  | 한·미 FTA 이행 가정 |       |       | 한·미 FTA 이행 비전제 |       |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| 5년차           | 10년차  | 15년차  | 5년차            | 10년차  | 15년차  |
| 돼지고기 | 509           | 1,055 | 1,055 | 556            | 1,214 | 1,214 |
| 낙 농  | 77            | 325   | 594   | 97             | 419   | 805   |
| 닭고기  | 139           | 193   | 201   | 161            | 277   | 331   |
| 쇠고기  | 97            | 296   | 370   | 121            | 394   | 526   |
| 계    | 822           | 1,869 | 2,220 | 935            | 2,304 | 2,876 |



## [참고자료 1]

### 농산물 양허안 개요(잠정)

#### ■ (돼지고기) 종류별로 5~10년간 관세 유지

- 냉동삼겹살 10년, 냉장삼겹살·목살은 10년간 관세를 유지하되, 수입 급증시 농산물 Safe Guard(ASG) 발동, 냉동족 및 밀폐용기 제품 6년, 기타 5년 등으로 차별화
- \* 한·미 FTA : 냉장삼겹살·목살(10년+ASG), 그 이외(2014.1.1일 관세철폐)
- \* EU산 냉동삼겹살 수입('08) : 2.8억불 (EU산 돼지고기 전체 수입액 : 4억불)

#### ■ (낙농품) 양허기간을 장기화하는 대신 무관세 물량(TRQ)을 설정

| 세부 품목(관세율)        | 한·EU FTA 논의내용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혼합분유(36%)         | 10년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탈·전지(17%), 연유(89) | 현행유지 + TRQ(1,000톤)          |
| 치즈(36)            | 15년(체다치즈 10년) + TRQ(4,560톤) |
| 버터(89)            | 10년 + TRQ(250톤)             |
| 유장(49.5)          | 10년 + TRQ(3,350톤)           |

\* EU산 낙농품유제품 수입('08) : 1.9억불

#### ■ (과수) 사과, 배, 오렌지에 대하여는 한·미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합의

- 사 과(45%) : 후지 20년 + ASG, 기타 품종 10년 + ASG
- 배 (45%) : 동양배 품종 20년, 기타 품종 10년 관세 유지
- 오렌지(50%) : 계절관세 기간(9월~2월) 중 현행관세 유지 및 TRQ 제공, 비성수기(3월~8월)는 7년 관세 유지
- 감귤(144%) : 온주밀감 현행관세 유지, 맨더린 15년 관세 유지

#### ■ (기타) 쌀은 양허제외, 대두·보리·감자·고추·마늘·양파·인삼 등 주요 품목(9개)의 핵심 세번(식용 및 신선)은 현행관세 유지 합의

[참고자료 2]

농산물 품목별 세부내용

<식량작물>

(수입액 : '06~'08 평균)

| 품목명        | 협상 결과   |
|------------|---|
| 쌀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</li> <li>○ 쌀조제품(찐쌀 포함) 10년, 배아 5년, 미강 즉시 폐지</li> </ul>   |
| 대 두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용대두(487%)는 현행관세유지, 대두유(5.4~8%, 정제유 등)는 5년 철폐, 기타 대두(20~27%)는 5년 폐지</li> <li>※ 식용대두(487%) : 없음, 대두유(정제유 등) : 382천달러, 기타 대두(콩 신선/조제저장처리) : 821천달러</li> </ul>  |
| 감자<br>감자분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용감자(304%)는 현행관세유지, 냉동 및 건조감자는 5년 폐지</li> <li>○ 감자분(304%)은 13년 철폐, 감자플레이크(304%) 10년 폐지</li> <li>※ 식용감자 : 없음, 감자(냉동/건조) : 없음, 감자분 : 59천달러,</li> </ul>   |
| 보 리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겉보리(324%)·쌀보리(299.7%)는 현행유지, 보리 기타(299.7%)는 13년</li> <li>* 가공용보리(260%) 10년, 제빵용 보리가루는 5년</li> <li>※ 제빵용 보리가루 : 27천달러</li> </ul>  |
| 옥수수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료용 옥수수(328%)는 5년 폐지. 팝콘용(630%), 옥수수 기타(328%)는 13년, 옥수수가루(167%)는 10년</li> <li>※ 사료용 옥수수 : 278천달러, 옥수수기타 : 5,979천달러, 옥수수가루 : 50천달러</li> </ul>   |
| 전 분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밀 전분(50.9%)은 5년 폐지. 감자 전분(455%)은 15년 철폐 + ASG, 옥수수(226%), 고구마(241%), 매니옥(455%) 등 기타전분은 15년 폐지</li> <li>○ 변성전분(385.7%)은 12년 + ASG</li> <li>* TRQ : 2.8만톤('04~'06 평균수입액 × 80%)</li> <li>※ 밀전분 : 15천달러, 감자전분 : 21,658천달러, 기타(옥수수 등) : 360천달러, 변성전분 : 31,951천달러</li> </ul> |
| 맥아·<br>맥주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맥아(269%), 맥주맥(513%) 15년 + ASG,</li> <li>* TRQ : 1만톤('04~'06 평균수입액 × 98%)</li> <li>※ 맥아 : 699천 달러</li> </ul>  |

<육 류>

(수입액 : '06~'08 평균)

| 품목명  | 현상 결과  |
|------|--|
| 쇠고기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감한 6개 세 번(40%) : 15년 + ASG</li> <li>* 도체와 이분도체(냉장 및 냉동), 부분육(냉장 및 냉동)</li> <li>○ 육우(40%)와 식용설육(죽·꼬리 등)(18%), 쇠고기 가공품(30~72%) 등 : 15년</li> </ul>  |
| 돼지고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냉동삼겹살(25%) : 10년 폐지</li> <li>○ 냉장삼겹살·목살(22.5%) : 10년 + ASG</li> <li>○ 냉동족(18%), 밀폐용기의 것(30%) : 6년</li> <li>○ 기타 부위(22.5%~30%) : 5년 폐지</li> <li>※ 냉동삼겹살 : 261,109천달러, 냉장삼겹·목살 : 1,136천달러</li> <li>냉동족 및 밀폐용기 : 12,381천, 기타부위 : 126,018천달러</li> </ul> |
| 닭고기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냉동(가슴살, 날개)(20%) : 13년 폐지</li> <li>○ 냉장육(18%), 냉동(다리, 기타 절단육)(20%), 닭고기 가공품(30%) : 10년</li> <li>○ 삼계탕(30%) : 10년 폐지</li> <li>※ 냉동(가슴살, 날개)수입액 : 4,282천달러</li> <li>냉동(다리, 기타 절단육) : 334천달러</li> </ul>  |
| 계란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란(27~41.6%) : 15년 폐지</li> <li>○ 난황(27%) : 13년 폐지</li> <li>○ 종란 등 기타(27%) : 10년 폐지</li> <li>※ 계란 수입액 : 225천달러, 난황 수입액 : 357천달러</li> <li>종란 등 기타(4개 세 번) : 86천달러</li> </ul>  |
| 기타육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오리고기(18~22.5%) : 미절단 냉동육 13년, 미절단 냉장육 12년, 절단 냉장육 10년, 절단 냉동육 13년 폐지</li> <li>○ 산양·면양고기(22.5%) : 10년 폐지</li> <li>○ 칠면조고기(18~30%) : 7년 폐지</li> <li>○ 녹용·녹각(20%) : 15년 폐지</li> <li>※ 오리고기(9개 세 번) : 417천달러, 칠면조고기 : 145천달러,</li> </ul>                |

<낙농품, 사료, 가공식품>

(수입액 : '06~'08 평균)

| 품목명            | 협상 결과  |
|----------------|--|
| 분유<br>연유<br>유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탈지분유(176%)·전지분유(176%)·연유(89%) : 현행관세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관세쿼타(TRQ) 제공 : 1,000톤('04-'06 평균수입액 × 90%)</li> </ul> </li> <li>○ 혼합분유(36%) : 10년 폐지</li> <li>○ 조제분유(36~40%) : 10년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관세쿼타 제공 : 450톤('04-'06 평균수입액 × 100%)</li> </ul> </li> <li>○ 유당(20~49.5%) : 5년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탈지분유 수입액 : 3,191천, 전지분유 : 643천, 연유 : 82천, 혼합분유 : 59,511천, 조제분유 : 1,501천, 유당 : 6,527천달러</li> </ul> </li> </ul> |
| 치즈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체다, 커드 및 블루바인 치즈(36%) : 10년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체다 치즈는 TRQ 제공(통합)</li> </ul> </li> <li>○ 커드 및 블루바인을 제외한 다른 치즈(36%) : 15년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관세쿼타(TRQ)제공 : 4,560톤('04-'06 평균수입액 × 100%)</li> <li>※ 치즈(커드·블루바인 제외) 수입액 : 30,053천달러, 커드/블루바인치즈 : 13천달러</li> </ul> </li> </ul>  |
| 밀크와<br>크림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밀크와 크림(지방함량 6% 이하)(36%) : 15년 폐지</li> <li>○ 크림 기타(지방함량 6% 초과)(36%) : 13년 폐지</li> <li>○ 냉동 크림(지방함량 6% 초과)(36%) : 10년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크림 기타 : 873천달러, 냉동크림 : 10천달러</li> </ul> </li> </ul>   |
| 버터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버터(89%) : 10년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관세쿼타(TRQ) 제공 : 350톤('04-'06 평균수입액 × 100%)</li> <li>* 데어리 스프레드(8%) : 즉시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버터 수입액 : 1,696천달러, 데어리스프레드: 187천달러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  |
| 유장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장(49.5%) : 10년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관세쿼타(TRQ) 제공 : 3,350톤('04-'06 평균수입액 × 39%)</li> <li>※ 유장 수입액 : 16,673천달러</li> </ul> </li> </ul>  |
| 사료품목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료용 근채류(100.5%) : 15년 폐지</li> <li>○ 보조사료(50.6%) : 12년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관세쿼타(TRQ) 제공 : 5,500톤('04-'06 평균수입액 × 90%)</li> </ul> </li> <li>○ 사료용 옥수수(328%), 대두(채유 및 박용)(487%) : 5년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사료용 근채류 : 310천달러, 보조사료 : 10,307천달러, 사료용 옥수수 : 278천달러</li> </ul> </li> </ul>  |